http://dx.doi.org/10.21793/koreall.2018.106.91

개화기 북산 임규의 근대성 연구*

정훈(전북대)**

〈목 차〉

1. 서론
2. 임규와 『북산산고』
1) 임규의 생애에 대한 검토
2) 『북산산고』에 나타난 임규의 근대성
3. 결론

1. 서론

1800년대 후반과 1900년 초반 시기 한국의 근대라고 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된 문학연구의 중심에는, 근대의 역사적 성격과 근대문학의 미학적 특질을 한국문학사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이 시기의 문학관 또는 문학 개념을 검토하는 일이 언제나 조심스럽고 버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요한 문학사적인 과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1]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일제시기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4102).
** (현) 군산대학교

www.kci.go.kr

에 이르는 때가 문학적으로 단절된 시기가 아니라 다양한 문학적 형태들이 중첩된, 혹은 변화해 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기를 거치면서, 그 시대를 온 몸으로 증명해낸 인물로 북산 임규가 있다.

임규(林圭, 1866~1948)의 자(字)는 형여(亨呂)이고, 호는 우정(偶丁) 혹은 북산(北山)이다. 본관은 평택이고,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에서 태어났다. 한문과 한시에 능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일본유학을 감행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일본에 머무르면서 일본어에도 능통했다. 일본어 교사로서 일본에 유학 온 조선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쳤고, 최남선과 함께 귀국하여서는 일본어문법에 관한 저서들을 발간하고, 교육, 저술활동과 독립운동에 힘썼다. 최남선이 세운 신문관에서 1912년부터 『일문역법』(상), 『일본어학음어편』, 『일본어학서간편』 등을 발간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참의원 의장 집을 방문하여 독립선언서와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고 돌아오던 길에 시모노세키에서 체포되어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가 무죄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후 교사활동과 〈계명〉의 편집위원 등을 지내는 한편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 한글맞춤법 통일안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말년에 이르러 백농 최규동 선생이 "선생의 시는 의지가 반드시 다른 여러 작가보다 기이한 것이 있어서 없애 버릴 수가 없으니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해 두십시오."라는 간곡한 청에 따라 1941년 9월경에 『북산산고』을 엮었다. 이후 귀향하여 갑신년(1944) 3월에 후편을 편집하여 『북산후고』를 편집하여 책 뒤에 붙였다.

북산 임규에 대한 연구로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은 모두 5편 정도이다. 이 가운데 4편이 정후수의 논문이고, 다른 한 편은 권두연의 논문이다. 정후수는 중인문학 전공자로서 조선시대 중인들과 그들의 문학세계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그가 북산에 주목하게 된 이유도 북산의 출신성분이 중인이라는 것과 은사인 권우(卷宇) 홍찬유(洪贊裕)의 직계 스승이라는 점이

www.kci.go.kr

1) 국제어문학회편,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발전』, 보고사, 2004. 35쪽.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임규의 제자인 홍찬유의 감수아래 정후수는 『북산산고』[2)]를 번역하였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정후수는 「우정 임규 연구・서」(1992)를 시작으로, 「우정 임규의 근대문화사적 역할」(1993), 「우정 임규론」(1999), 「우정 임규의 시세계」(2003)까지 4편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우정 임규 연구・서」는 우정 임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적인 성격이 짙다. 그 내용은, 어렸을 때 익산군수 밑에서 통인(通人)을 지냈다가, 일본 유학을 하고, 귀국하여 사립학교 교사로 지냈던 시절, 3・1운동과 계명구락부 시절 등으로 나누어서 서술하였다. 「우정 임규의 근대문화사적 역할」은 이전 논문의 내용을 심화시켰다. 이전 논문이 단순히 생애를 기록한 것이라면, 이번 논문에서는 '수양(修養)', '망국의 한(恨)', '조선어 통일 사업', '인재를 생각하며' 등으로 항목화하여 임규의 생애를 정리하였다. 「우정 임규론」은 삶의 지향점과 시세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통인이라는 중인신분으로 출발하였으나 갑오개혁의 변혁기를 거치면서 신분의식이 희석되었고, 현실적인 감각과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규의 한시가 311수로 작품 수도 그리 많지 않고, 뚜렷하게 자신의 시관이나 시작법에 대해 밝혀 놓은 것이 없지만, 시에 나타난 경향을 살펴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우국애인(憂國愛人)을 주제로 다룬 내용이 많다는 점을 밝혔다. 「우정 임규의 시세계」에서는 임규의 시관이 '진실'과 '간결'함을 위주로 하였으며, 시의 특징은 '간결한 형식'과 '평이한 문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권두연(2016)은 「임규의 한시를 읽는 두 가지 방법: 매체와 교유관계」라는 논문에서, 임규의 한시가 『북산산고』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시 창작 과정과 시에 나타난 인물들의 교유관계를 규명하였다. 평소에 시 쓰기를 즐겨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인물들과 평생에 걸친 교유관계를 유지한 것은 한시(漢詩) 쓰기였다며, 한시를 통한 교유관계망

2) 정후수는 『북산산고』와 『북산후고』를 합하여 번역한 후, 『북산산고』라는 이름으로 2004년도에 발간하였다.

www.kci.go.kr

을 밝혔다. 임규는 계명구락부에 소속되어 있던 '이군사(以群社)'라는 시회(詩會)에서 활동하였고, 성북동 일대의 풍경과 장소들이 많은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지은 시들에 나타났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개화기시대 잡지인 『계명시보』에는 "북산일민(北山逸民)", 혹은 "북한일민(北漢逸民)"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게재한 글들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북산산고』와 정후수, 권두연의 논문을 읽으면서 임규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익산군수의 통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인이라고 하는데, 통인이면 중인인가, 군수 정기우(鄭基雨)는 700석이라는 거금을 왜 나이도 어리고(당시 15세) 신분도 낮은 통인(通引)에게 맡겨서 서울로 심부름을 보냈을까? 700석을 훔쳐갔는데, 정기우의 아들인 정만조, 병조 형제는 어떻게 임규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일본유학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가게 되었고,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렀을까, 일본에 머물면서, 혹은 조선에 돌아와서 경제활동은 어떻게 유지했을까, 왜 최남선하고 함께 귀국했을까, 왜 귀국해서는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고, 주로 교육사업에 그렇게 힘을 썼을까, 전통적인 한시창작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시사(詩社)활동도 하고 잡지 창간 등 근현대적인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 수많은 궁금증이 생겼다. 임규가 활동한 시기와 현대는 채 100여 년 정도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인물에 대한 정보는 부정확한 것이 더 많았다.

어려서는 통인의 신분으로 사서삼경 등을 줄줄이 외울 정도로 한문학에도 매우 능통하였다고 한다. 일본 유학기에는 일본어 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귀국하여서는 잡지 창간 등에 적극 참여하였고, 육영사업에도 적극적이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8년 타계할 때까지는 당시의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임규의 이러한 상황은 조선후기로부터 개화기를 지나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임규에 대한 한국문학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임규는 조선후기로부터 개화기를 거쳐 근대시기로 변화하는 상황을 온몸으로 체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한국문학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뉘어 단절되어 있는

www.kci.go.kr

상황에서 둘의 접점, 혹은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임규의 생애를 재검토하고, 그의 삶과 문학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사고방식 혹은 삶의 동인(動因)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특성이 한시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었고 그러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임규와 『북산산고』

1) 임규의 생애에 대한 검토

북산 임규에 대해 정후수는 1992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후수가 임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던 이유는 스승인 권우 홍찬유의 직계 스승이 임규였고,[3] 연구 주제가 '중인문학'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4] 12세~15세까지 익산군수의 통인으로 있었던 점, 자기 자신을 항상 '이속(吏屬)'이라고 했던 점, 일제 때 양반 점쟁이로 유명했던 홍일청(洪一淸)이란 사람이 임규를 아전출신이라고 무시했다는 일이 있었다는 것 등 홍찬유의 증언을 토대로 정후수는 임규가 중인이라고 확신하였다.[5] 권두연(2013)의 경우, 초기 생애에 관련된 언급은 자제하고, 주로 귀국 이후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서술하였다.

임규는 1880년 경 14세 때에 익산군수 정기우(鄭基雨)의 통인(通引)으로 있었다. 16세(1882)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29세(1895)에야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중학교 특별과에 입학하였다가 졸업 후 잠시 귀국하였다가 34세(1990)년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게이오의숙 경제과에 입학하였다.[6] 임규가 일본으로 건너

3) 정후수, 『북산산고』 서, 깊은샘, 2004. 7쪽
4) 정후수, 「우정 임규 연구 서」, 『한성어문학』, 1992, 51쪽.
5) 정후수, 「우정 임규론」, 『동악어문학』, 35집, 286쪽. 정후수는 스승인 홍찬유가 말한 내용으로 임규의 생애를 재구성하였다.

www.kci.go.kr

간 1882년은, 1881년 신사유람단이 일본을 다녀온 후 일본 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였다. 유학생 파견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학문과 기술을 배운다는 명분이 있었고, 일본은 한국 유학생을 수용함으로서 친일요원을 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둘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881년 6월에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이었던 유길준(兪吉濬), 류정수(柳正秀) 등 2명이 게이오의숙(慶應義塾)[7]에, 윤치호(尹致昊)가 동인사(同人社)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일본유학이 시작되었다.[8] 일본의 근대화에 강한 감화를 받은 박영효, 김옥균 등이 중심이 되어 유학생파견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1882년에는 박영효의 수행원이었던 박유굉(朴裕宏), 박명화(朴命和)가 게이오의숙에 입학하였다. 초기 유학생 대부분은 관비유학생이었다. 유학생 부친의 지위는 가문의 지위가 낮은 신분출신이라 할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가 폐지되고 문벌의 차별을 제도상으로 혁파한 영향도 있겠지만 보수세력은 전통적 교육에 아직 얽매여 있었기 때문[9]이다. 초기 유학생들은 신분배경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규는 사비로 일본유학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유학경비로 등장하는 것이 700석이다. 익산군수 정기우[10]는 14세의 어린 통인 임규에게 쌀 700석을 맡기면서 서울 모처에 상납하라고 하였는데 임규가 이

6) 『북산산고』, 연보, 351-352쪽.

7) 게이오의숙은 사학(私學)으로서 서양학문을 받아들이기 위해 세운 학교였다. 게이오의숙은 조선정부와 계약을 맺고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수용하였다.

8) 박인화, 「구한말 도일관비유학생에 관한 고찰」, 『녹우연구논집』, 이화여자대학교, 1982, 81-82쪽.

9)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1982, 일조각, 431쪽.

10) 정기우(鄭基雨)는 연일 정씨로 익산 배산지역의 명문거족이라고 하였다. 정후수의 논문이나, 『북산산고』 등에서는 정기우가 익산군수를 지냈다고 하는데 아마도 세거지가 익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팔도총록』에 의하면, 정기우는 1882년 진산군수(지금의 금산군)를 지냈다. 아들 정만조(鄭萬朝)는 대동학회 평의원과 경학원대제학을 지냈다. 정병조(鄭丙朝)는 조선총독부중추원참의를 지냈고, 한시에 매우 능하였다고 한다. 정병조의 아들 정인익은 〈매일신보〉편집국장을 지냈다. 이들 모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랐다.

www.kci.go.kr

쌀을 돈으로 바꾸어 일본으로 갔다고 한다. 이 많은 쌀을 서울에 가져다 부패한 관리의 손에 넣어준다는 것은 바로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한 나머지 그 쌀을 모두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일본으로 갔다는 것이다.[11] 임규의 손자인 임익순은 자기 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선대 조부님들께서는 대대로 관직벼슬을 지내시어 형편도 무난하셨고 재산도 천석꾼까지는 못되었어도 지방거족으로 풍요롭게 사셨다. 내가 뵌 3대 조부님 즉 증조부님은 호리호리한 키에 하얀 수염이 인상적이었는데 여름철 하얀 모시소단에 통영갓 차림으로 푸른 들판 두렁길을 지나가실 때는 흡사 신선과도 같았다. 그 어른은 벼슬이 정3품에 이르렀고 재산도 몇 백석은 하신 듯했다. 또한 문장과 문필이 그 지방에서는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한다. 더구나 신학문을 이해하시고 구한말에는 계명학교라는 사립초등학교를 세우셨는데 후에 공립으로 개편됨과 동시에 교장에 취임하셨다. 그 학교가 나도 다니 금마공업보통학교(금마공립보통학교의 오기인 듯)이다. 나는 증조부님이 창립하신 학교의 19기 졸업생이다.[12]

손자인 임익순의 회고에 의하면, 평택 임씨는 익산 금마 동고도리 지역의 지방거족이라고 하였다. 조부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재산을 지니고서,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증조부께서는 신학문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익산지역에 계명학교라는 사립초등학교와 금마공업보통학교를 세울 정도로 새로운 사고와 혁신성을 지닌 집안이라고 할 수 있다.[13] 이러한 경제적, 사상적 기반이

---

11) 비록 군수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700석이나 되는 거금을 어린 통인에게 맡긴 것도 의아하다. 정기우의 아들인 정병조와 정만조는 일제 강점기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친 임규를 잡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국한 후에 임규를 보면 깍듯이 인사했다고 한다. 임규 역시 정만조, 정병조와는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한시에 능했던 정병조와는 시회(詩會)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였다.
홍찬유의 증언에 의하면 700석에 해당하는 돈은 임규가 유학기간 동안 다른 유학생들에게 쌀을 대주는 바람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한다. 임규가 귀국 후 정기우나 그 후손들에게 700석의 돈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12) 임익순, 『내 심장의 파편』, 시월, 2013, 29-33쪽 내용 요약.

www.kci.go.kr

있었기 때문에 임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감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95년[14] 임규는 게이오의숙 특별과에 입학하였다. 게이오의숙에서는 유학생별과를 마련하고 수업연한을 1년 8개월로 정하였다. 이후 이 과정을 마치면 타교 혹은 관청이나 회사로 보내졌다고 한다.[15] 1900년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도일하여 게이오의숙 경제과를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이후 1908년 최남선과 함께 귀국할 때까지 대한유학생회 등 유학생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으로 유학 온 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유학생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임규는 『대한유학생회보』를 창간하는데 회비로 매월 일원(일원)씩 찬조하였다.[16] 임규는 귀국한 후에도 『대한자강회보』, 『호남학보』등의 창간에 관여하면서 찬조금을 내기도 하였다.

> 이렇듯 조선 말기까지 평화스럽기만 하던 우리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은 외세의 침략이 그 원인이었다. 증조부님 슬하에는 4남 1녀가 계셨다. 그 장남이 나의 조부님이시다. 조부님은 부잣집 맏아들로 호강하며 자랐고 독서당을 차리고 글공부도 하셨다고 한다. 적령기에 결혼도 하시어 나의 아버지이신 큰 아들을 낳으셨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정은 우국지사들을 평화롭게 두지 않았다. 조부님도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로 세우겠다는 충정으로 고향과 부모형제 그리고 처자를 모두 버리고 집을 나서게 되셨다. (중략) 당시 증조부님은 장손인 나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일본인에 밀착하고 친일하는 막내아드님인 종조부님에게 적지 않은

---

13) 증조부(임규의 부친)의 영향은, 후에 임규가 일본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고, 귀국후 잡지 등을 통해서 시민들을 교육하며, 협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교육자로서 활동했던 사실들을 설명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14) 임규가 1882년 일본으로 가서, 1895년 게이오 의숙에 입학할 때까지 약 13년 간 일본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없다. 임규의 집안이 익산 금마지역에서 매우 큰 부자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유학비용을 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15) 김영모(1982), 420쪽

16) 정후수는 임규가 일정한 수입원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10환 이상을 출연하였다고 보았다.(정후수(1993), 37쪽 재인용). 임규가 일본에 있으면서 어떤 직업에 종사했다는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단순히 유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내용은 있으나 수업료를 얼마 받았다는 것은 알 수 없다.

www.kci.go.kr

재산을 물려주셨다. 나의 아버지는 소년 시절에는 부잣집 장손으로 어려움 없이 글도 배우고 자라셨으나 그 후로는 이러한 가정적 변화로 인하여 희망도 깨지고 그의 숙부의 모진 학대와 박해로 조모님을 모시고 집을 나오셨다. 거기에 일본 경찰들이 지독한 감시까지 받으며 살아야 했다[17].

증조부 슬하 4남 1녀중 장남이라는 인물이 곧 임규이다. 임규는 맏아들로 호강하며 자랐고, 독서당을 차리고 글공부를 하였고, 적령기에 결혼하여 큰 아들인 완(完)과 둘째아들 홍(弘)을 얻었다.[18] 그런데 임규는 고향처자를 버리고 집을 나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임홍식에 의하면 집안이 기운 것은 일제강점기에 임규가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친일행위를 일삼던 종조부님이 유산을 물려받아서 모두 탕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임규나 임규의 아들(즉 임홍식의 아버지)은 증조부의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였다[19]고 한다. 그래서 임규나 임홍식은 매우 궁핍하게 생활하였다고 한다.

임규는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 대부분을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연보를 살펴보면 경성부 하리동, 원동과 자하문 밖 등에서 대부분 거주하였고, 말년에는 주로 성북동에서 머물렀다. 특히 성북동에 있는 청룡암 미륵당이란 암자에서 하숙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곧 임규가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북산산고』에 나타난 임규의 근대성

19세기말~20세기초는 고전문학의 마지막 시기이면서 한국근대문학의 첫

17) 임익순, 『내 심장의 파편』, 시월, 2013. 33쪽

18) 임규가 1895년 게이오 의숙에 입학할 때까지 약 13년 간의 생활을 정후수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임익순의 증언에 의하면, 임규는 이 기간동안 일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독서당을 차려서 공부도하고 결혼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9) 임익순은 조부인 임규가 큰아들이면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이 독립운동을 한 것 때문인지, 또 다른 신분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www.kci.go.kr

머리에 놓인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고전문학이 어떻게 근대문학으로 변화했는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근대'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큰 문제이다.

근대라는 개념 즉 근대성은 단순히 이러한 일련의 현상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간의 특수한 경험과 역사의식을 가리킨다. 근대성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이며, 새로움이란 자신들의 시대가 지나간 시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리고 더 나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20]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보낸 시간의 특수한 경험과 역사의식을 가리킨다. 즉 근대성은 각 개인이 경험했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자신들의 경험이 과거와는 다른 진보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근대성을 논의할 때 핵심은 주체 혹은 자아의 인식문제가 된다. 즉 근대적 인간은 기존의 전통과 권위,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이성과 의지로써 자유롭게 자신을 인식하려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다. 이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독자적인 개성과 자기 정체성을 요구하게 되고, 여기에서 근대의 중요한 가치인 개인의 자유가 제기된다. 신문학운동, 자유시 운동은 자유에 입각한 개인의 자기 정체성 또는 개성을 탐색하고 발현하는 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21]

개인이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고 실현한다는 생각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은 근대사회에 들어와서의 일임을 고려할 때 '주체의 탄생'은 '근대'라는 시간대의 산물임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국민국가의 성립, 자본주의 발달과 산업화, 개인주의, 시민사회, 합리주의적 정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요약됨에는 이의가 없다.[22]

임규는 약 311 수의 한시를 남겼다. "나는 평소 시에 익숙하지 않고 또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다. 비록 한때 친구들을 만난 장소에서 시를 읊기는 했으나 지렁이나 매미가 울어댈 정도에 지나지 않아, 한갓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

20)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 역사, 28쪽.
21) 국제어문학회편,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발전』, 보고사, 2004, 63쪽
22) 서은경, 『근대 초기 잡지의 발간과 근대적 문학관의 형성』, 소명출판, 2016. 44쪽

www.kci.go.kr

웃음거리 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모아놓지 않았고, 어쩌다가 우연히 모아놓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다 차 담는 봉투에 붙여서 한 조각의 원고도 상자에 담아 놓은 것이 없었다."[23]고 회고하였다 문집을 발간하게 된 계기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규동(崔奎東)[24]이 "선생의 시는 의(意)를 세운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작품과는 다른데 어찌하여 이렇게 스스로 다 없애고서 떨어진 깃털이나 조각 비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25]라고 간절하고 독실하게 권유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과거 기억을 더듬고(『북산산고』), 요즘 지은 작품(『북산후고』)을 엮어서 오언절구(75수), 오언장편(1수), 칠언절구(25수), 칠언율시(207수)를 남겼다.

임규의 시세계에 대한 본격연구는 정후수[26]와 권두연이 있다. 정후수는 1) 사실위주의 시작(詩作), 2) 우국애인(憂國愛人)의 세계, 3) 간결한 형식과 평이한 문장, 4) 독립에 대한 갈망과 교육 실시 등을 임규 한시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권두연은 임규의 『북산산고』에 실린 시들이 『개벽』, 『삼천리』, 『계명』 등의 잡지에 발표가 되었던 작품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그의 한시에는 약 6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며[27] 다양한 인물들과의 교유관계가 한시쓰기의 원동력이었으며 그의 한시는 교유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소통구조였다는 점을 밝혔다.

임규의 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들이 많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가 있지만, 수양(修養)이나 도덕성 함양을 위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규의 시에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주변환경을 사실적으로

---

23) 임규, 『국역 북산산고』서, 깊은샘, 2004, 10쪽.

24) 최규동(崔奎東): 경북 성주 출신, 호는 백농(伯農), 교육자. 휘문의숙 교사, 중동학교 교장취임, 일제강점기 초반 민족정신과 구국애족정신 고취했으나 후반에는 일제에 협력하기도 했다. 광복후 중동중학교 교장, 3대 서울대 총장을 지냈다. 1950년 6.25 전쟁 때 납북되어 평양에서 피살되었다.

25) 임규, 『국역 북산산고』서, 깊은샘, 2004, 10쪽.

26) 정후수는 「우정 임규론」(1999)과, 「우정 임규의 시세계」에서, 임규의 시를 분석하였다.

27) 권두연(2016), 342-345. 〈표2〉 참조

www.kci.go.kr

인지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라는 주체를 본격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 "1900년대에는 국가민족에 대한 열기가 부국강병 충국애국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갔던 시기였기에 근대 주체로서의 개인의 존재는 분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독립된 정치체로서 국가를 상실한 1910년대 이후에는 나와 국가에 대한 동일시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탐색하기에 이른다. 동시에 근대문명의 힘에 의해 중세의 미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삶의 질서가 힘을 잃어가게 됨에 따라 운명과 자연에 순응하던 각 개인은 점차 각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의지와 노력 등 주체에 대한 각성에 눈 뜨기 시작한다.[28]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때는 충성할 수 있는 존재, 즉 임금과 국가가 존재하였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비들에게 매우 강조했던 '수신(修身)'도 결국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그 대상이 없어지거나 모호해졌다. 한편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에 대한 구속도 사라졌다. 1894년의 갑오경장에서 신분제를 철폐하자 중인이라는 신분이 없어졌다. 1917년은 『풍요삼선』이 나온 지 60년이 되는 해여서 사선을 편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남선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중단했다.[29] 이제는 남들이 신분을 바꿔주는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지위를 마련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신분상승 혹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방법밖에 없다. 개인의 주체성을 깨닫게 된 임규는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살피며, 타인과 시회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활동과 독립운동을 함으로서 자신의 지위향상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하였다.

---

28) 서은경(2016), 43-44쪽.

29) 조동일, 서종문, 박종성, 『국문학의 역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3, 278쪽.

www.kci.go.kr

(1) 개인이라는 주체에 대한 자각

조선사회는 철저한 유교사회였다. 유교사회는 신분질서를 유지하려는 특성이 강하다. 군자와 소인, 남자와 여자, 임금과 신하 같은 상하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질서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된다면 사회와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고 보았다. 혼란과 위기상황이 닥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이러한 구조를 강화하기 때문에, 조선후기 사회에서 신분질서가 없어진다거나 붕괴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30]

신분상 하층민인 중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였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 사이에 이르면 중인 사회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가문을 기록한 족보를 만들고, 한문 소양을 바탕으로 집안의 문집을 발간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중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문학적 노력이 집단화 되어 나타난 것이 공동문집의 편찬이었다. 1668년(현종9) 『육가잡영』을 비롯하여 『해동유주』, 『소대풍요』 등은 중인집단의 문집이었다. 이후 『풍요속선』 간행 후 60년 뒤에 『풍요삼선』이 간행되었다. 그런데, 갑오개혁이후 1917년에 중인문집 발간을 기획하였지만 최남선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며 문집발간을 거부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중인이라는 '집단의식'보다는 '개인'을 인식하고 자기를 주체적으로 주장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최남선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자신의 호(號)를 직접 언급하는 글을 남겼다[31]는 것이 하나의 증거이다. 임규는 산강(山康) 변영만(卞榮晩)에게 호설을 부탁하였다.

林圭中立父 임규 중립씨는

---

30) 송만오, 「계보자료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중인의 사회적 지위」, 『한국학논집』44집, 2011. 202-204쪽.

31)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변영만전집』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59쪽.

www.kci.go.kr

自號偶丁翁 자호를 우정옹이라 하였네
造余丐一文 나에게 와서 글 한 편을 요구하니
爲發號義蒙 호에 담긴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네
詩是有韻文 시란 운이 있는 글
用玆欲有逢 이로써 그 뜻에 닿고자 하네
奚但號是事 어찌 다만 호만 얘기하리오
吾將見四通 나는 장차 사방으로 통해보리라[32]
〈하략〉

임규는 우정(偶丁)이란 자호(自號)를 1912년부터 사용하였다. 그런데 만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세 이상 차이가 나는 변영만에게 호설(號說)을 부탁하였다. 이에 변영만은 시로써 그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쓴다고 하였다. 게다가 호(號)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통한다고 하면서, 성명(姓名), 자(字)[33], 호(號)에 대한 풀이와, 임규가 살아가는 자세, 말년에 불교에 귀의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풀이하였다.[34] 다음 시 「영욕(榮辱)」에서 임규는 평생의 삶의 자세를 표현하였다.

好生而惡死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均是凡人情 모든 사람들이 품은 인정이다.
有生必有死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도 있는 것
天理小難爭 하늘의 이치는 다투기 어려운 것이다.
其間有榮辱 그 사이에 영화와 모욕이 있으므로
取捨宜該精 취하고 버리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
生辱死猶辱 살아서 욕되면 죽어서도 욕이 되고
生榮死亦榮 살아서 영화로우면 죽어서도 영화롭다
世人莫疑訝 세상 사람들아 의심하여 떠들지 마라

3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변영만 전집』상, 성균관대출판부, 2005. 35쪽.
33) 기존자료에서는 임규의 자(字)를 모두 형여(亨如)라고 하였다. 변영만의 시를 통하여 임규의 또 다른 자(字)가 중립(中立)임을 알 수 있었다.
34) 변영만이 써준 호설에 대해 임규는 「화변산강(和卞山康(榮晩))」이라는 답시(答詩)를 써 주었다.

www.kci.go.kr

此事甚分明 이 일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35]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감정이다. 지체높은 양반들의 죽음은 명예롭고 중인들은 비루하게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러한 보편성은 아래의 함련에도 이어져 삶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천지자연의 보편성으로 확장된다. 경련에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의심할 일이 없다.

살아서도 영화롭게 살고, 죽어서도 영화롭게 살기를 희망한 임규는 살아생전에 개인의 성장과 나라의 독립, 미래를 위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일본유학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임규는 고향산천을 떠나 조국 독립과 주권회복을 위해 집을 나선 뒤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75세 노인이 된 1943년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逡巡直不款荊扉 우물쭈물 우리집 사립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
一劫滄桑萬事違 한겁 세월동안 온갖 일을 어겼기 때문
舊別山川心歷歷 옛날에 이별하던 산천을 마음에 하나하나 잘 알겠고
前來閭落夢依依 앞서 지나온 마을들은 꿈인양 어렴풋하다
耳談婦女窺相笑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아낙들은 서로 보고 웃으며
頸禮兒童立卽歸 경례하는 아이들은 섰다가 바로 돌아간다
五十餘年今昔感 50여 년 지난 지금 옛날 생각하니
化爲雙淚盡霑衣 두 눈물로 변하여 옷을 적신다.[36]

기련에서는 75세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익산 고향집에 돌아온 어색함을 표현하였다. 16세에 집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뒤, 43세 때인 1908년이 되어서야 최남선의 권유에 의해 귀국하였다. 귀국한 이후에도 1919년 2월에 일본으로

35) 『북산산고』, 「영욕(榮辱)」, 25쪽
36) 『북산산고』, 「歸故山」 癸未三月(1943년 3월), 225쪽

www.kci.go.kr

건너가 참의원 의장에게 독립선언서와 청원서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3·1운동이후에는 보성전문학교를 비롯하여 사학에서 후진양성에 매진하였다. 1925년에는 협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75세가 되어 귀향하기까지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는 동안 집안 사정은 형편없이 망가졌다. 임규의 아들은 소년 시절에는 부잣집 장손으로 어려움 없이 글도 배우고 자랐으나 그 후로는 이러한 가정적 변화로 인하여 희망도 깨지고 그의 숙부의 모진 학대와 박해로 조모님을 모시고 집을 나왔다. 거기에 일본 경찰들이 지독한 감시까지 받으며 살아야 했다.[37] 즉 수신제가(修身齊家)라는 기본적인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니 귀향해서 집에 들어갈 자신이 없기에 문 앞에서 우물쭈물 하고 있다. 함련은 고향을 오래 떠나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또렷하였다. 그간 자신이 거쳐온 마을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어렴풋하다. 50여 년이나 지나버린 과거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른다. 자신의 늙은 모습에 소곤거리는 젊은 아낙네나 경례하는 아동들의 모습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평가받는 느낌이다.

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한편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살피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신문을 읽고,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고, 『개벽』 등에 계몽하는 글들을 발표하였다. 임규는 『계명시보』에 쓴 「한시짓는법에몇마듸」에서 "시는 성정으로부터 나오며, 시대와 환경의 감촉을 받아 희노애락"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는 그의 시작행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38] 다음 시는 새로운 문물로 등장한 라디오(羅支吾)를 읊었다.

> 無線電波分萬支 선도 없는 전파가 만 갈래로 나뉘니
> 化工到此亦輸奇 조물주가 여기에 또한 기이함을 주었구나

---

37) 임익순, 『내 심장의 파편』, 시월, 2013. 33쪽.

38) 임규, 「한시짓는법의몇마듸」, 『계명시보』 창간호, 1934, 3면. 권두연(2016:336)에서 재인용.

www.kci.go.kr

豈因通話煩交換 어찌 통화를 하려고 교환수를 번거롭게 하겠는가
不爲留聲要入吹 유성기처럼 녹음할 필요도 없네
聽取戶堂皆異處 소리를 듣는 집은 모두 다른 곳인데
播傳音響自同時 전달된 음향은 똑같은 시간에 들리네
有何神術能如許 무슨 귀신의 재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麻衰當年費苦思 마르코니가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39]

기련부터 경련까지 모두 라디오에 관련된 내용이다. 선이 없는 전파로 사람의 목소리를 전한다. 전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전하려면 교환수를 거쳐야 하는 당시 상황에서 라디오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교환수도 필요 없고, 소리를 남기기 위해서 유성기처럼 녹음할 필요도 없다. 가장 큰 특징은 라디오 소리를 듣는 집은 모두 다른 데 전파가 보내온 소리는 똑같은 시간에 들린다는 점이다. 세상에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물건이 어디 있을까라며 임규는 감탄한다. 참으로 귀신같은 물건을 만드느라 마곤(麻衰, 마르코니)이 골머리를 알았겠다는 찬사로 마무리하였다.

과거 문집의 발간 형태는 저자의 사후(死後)에 자손과 문인들이 모여서 남긴 시들을 모아서 엮고, 당대 문인들에게 서문과 발문 등을 받아서 앞뒤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산산고』는 비록 최규동이 강권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문집을 만들었다. 이후 귀향해서 누락된 것을 더 기록해서 『북산후고』를 엮었다. 스스로 문집을 엮은 행위는,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한 결과물이며, 과거 지식인들과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2) '잡지'라는 신매체를 이용한 시작(詩作) 활동

조선시대 중인들이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능력 면에서도 양반 사대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한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가 한시(漢

www.kci.go.kr

39) 『북산산고』, 「戲賦羅支吾」, 165쪽.

詩)를 짓고, 시회(詩會)를 여는 것이었다. 유재건이 1857년에 『풍요삼선』을 엮으면서, 당시 정승인 정원용(鄭元容), 조두순(趙斗淳)의 서문을 앞에 붙이고, 295인의 시를 수록하여 중인들의 세력을 과시하였다.[40]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에서 신분철폐가 없어지고, 이후 최남선은 중인들 문집을 따로 엮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조선시대가 철저한 유교사회로서 신분적 질서가 매우 강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신분질서가 없어졌다거나 사람들의 의식에서 신분차별 의식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임규는 전통적 방식인 시회(詩會)에서 시를 짓는 한편 현대식 매체인 잡지를 활용하여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임규는 『북산산고』의 서(序)에서 평소 시 쓰기를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친구들을 만난 장소에서 시를 읊었다고 했다. 최남선과 함께 귀국한 임규는 초기 신문관에서 일본어 문법책 등을 발간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렸다. 1927년에는 계명구락부 편집위원이 되어, 구락부안의 시회(詩會)인 이군사(以群社)에서 활동하였다. 이 시회에는 당대 대시인으로 유명했던 정병조(鄭丙朝)[41]와 이상천이 있었다.[42] 교유한 인물 중 안택중은 신해음사(辛亥唫社)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43] 실제 임규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만도 60여 명에 달한다. 교유한 인물 역시 대한제국 관리에서부터 조선총독부 관료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가에서부터 친일인사에까지, 아들, 기생, 밥 지어주는 할머니까지 각양각색이다.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까지 언급하면 1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대부들이 지었던 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수창시(酬唱詩) 혹은 증여시(贈與詩)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 시를 짓는 것은 '여기(餘技)'이고 '친목도모'

40) 조동일, 서종문, 박종성, 『국문학의 역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3, 277쪽
41) 정병조는 임규가 통인으로 있었던 군수 정기우(鄭基雨)의 아들이다.
42) 정후수, 「우정 임규의 시세계」, 『동양고전연구』18집, 148쪽.
43) 권두연(2016), 349쪽.

www.kci.go.kr

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회같은 자리에서는 서로 술잔을 주고받듯 시를 주고받는 수창시가 많았다. 임규의 시에서도 수창시와 화답시가 있지만 시의 분량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임규 역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잔치자리에도 참여하고, 여럿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기도 하지만 수창하기 보다는 그 자리에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읊은 것들이 많다.

「여안지정(택중) 등혜화문 고성(輿安之亭(宅中) 登惠化門 古城)」에서는 신해음사에서 활동했던 안지정을 만나서 혜화문의 옛 성에 올랐을 때 지은 시이고, 「자노량진 주하마포 추렵어 제우불급(自鷺梁津 舟下麻浦 追獵魚 諸友不及)」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노량진에서 마포로 내려오면서 물고기를 잡고 노는 풍경을 노래하였다. 임규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찾아가고 초청하고, 찾아오면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지었다. 이러한 풍경은 시회(詩會)라는 정식 명칭을 내걸고 활동하지는 않지만,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지속적으로 한시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石路溪邊亂白茅 돌길 시냇가에 흰 띠풀은 어지러운데
數家終歲是隣交 한 해가 다 가도록 두어 집만 사귀었네
衡門若忘依形立 사립문은 잊었지만 모양대로 서 있고
漂杵無調信手敲 빨래 방망이는 곡조 없어도 손 가는 대로 두드린다
大士如今開法界 큰 스님은 지금 법계를 연 듯한데
故人曾此作書巢 옛 친구는 이전에 여기에 서소를 지었다네
閒愁每伴閒吟到 한가한 시름이 들 때마다 한가하게 읊조리니
嶺外斜陽不可膠 고개 밖으로 지는 해를 붙들 수가 없구나[44]

위 시는 「성북동 절집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읊은(城北僧舍 與諸友同吟)」 시이다. 성북동 절집은 임규가 말년에 거처하던 곳으로, 청량사 미륵당을 말한다. 성북동은 절친이었던 서중관(徐中觀)이 20년 동안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www.kci.go.kr

44) 『북산산고』, 「城北僧舍 與諸友同吟」, 146쪽

몇 년을 지내니 몇 집과는 이웃이 되었다. 문은 있는 둥 마는 둥하고 빨래는 손가는 대로 두드린다. 큰스님은 청량사의 주지를 말하고, 옛친구는 서중관을 말한다. 한가한 때에 시를 지으니 어느 새 해가 저문다.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시를 지었지만 시의 내용에 친구들의 모습이 없다. 이 점이 예전 시회에서 지었던 시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을 보지 않았다면 여러 사람들이 모였던 시회에서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임규는 사실적인 정이 적고 상투적인 말이 많은 죽은 이를 위로하는 만장시(輓章詩), 회갑을 축하하는 축시(祝詩)등을 짓지 않는다고 하였다.[45]

임규의 많은 시들이 교유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그의 시 쓰기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인물들과 평생에 걸친 교유관계가 한시 쓰기를 추동하는 원동력이었으며 그의 한시 쓰기의 방법론[46]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규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개벽』, 『청춘』, 『유심』, 『반도시론』을 비롯한 잡지에 꾸준히 시를 썼고 이 경험을 토대로 『북산산고』라는 책을 묶었다.[47] 다음 시는 여러 벗들과 함께 신문관에 모였을 때 지은 「무오년 정월 12일 밤 신문관에 모여(戊午元月 十二夜 會于新文館)」이다.

擲柶揚鳶記憶新 윷놀이 연날리기 기억이 새로운데
居然五十二年人 어언 52살이 되었구나
上元明月前三夜 정월 밝은 보름달 3일 전날 밤
故國寒梅又一春 고국의 겨울 매화에 봄이 또 돌아온다.
閒檢鬢毛知客久 귀밑머리 한가로이 뒤지니 나그네살이 오래됨을 알았고
誤將文字度家貧 문자 좀 아는 척하다가 집안을 가난하게 만들었구나
今宵尙有屠蘇酒 오늘 밤엔 그래도 도소주가 남아 있으니
醉語紛紛各任眞 취한 채 떠들며 속에 있는 진실을 토해낸다[48]

45) 『북산산고』, 80쪽
46) 권두연(2016), 351쪽.
47) 권두연(2016), 350쪽.
48) 『북산산고』, 「戊午元月 十二夜 會于新文館」, 55쪽

www.kci.go.kr

이 날은 신문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초를 맞이하여 윷을 놀고, 연을 날리던 어릴 적 기억은 지금도 새로운데 어느덧 나이 52세가 되어버렸다. 함련에서는 겨울 매화가 피는 것처럼 고국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랐다. 그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어느 덧 귀밑머리는 하얗게 세고, 일본어로 문자를 아는 척 하면서 집안을 돌보지 못한 회한을 토로했다. 그나마 오늘 밤 모인 친구들은 술에 취해서 마음 속 깊은 곳에 감춰둔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이다. 도소주(屠蘇酒)는 정월 초에 먹는 술이다. 이 날 어른들은 나이 먹는 것이 싫어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먼저 술을 먹게 한다는 풍습이 있다. 임규는 그 해 1918. 6. 16「신문관 창립 10주년 기념에 여의 소회를 구함」을『청춘』14호(4권3호)에 게재하였다.

임규가 잡지에 글을 발표하고,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은 아마도 잡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속성이 원인으로 보인다. 개화기 근대 잡지는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념과 가치를 전파하는 매체였으며, 독자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지식과 문화 권력의 장치[49]라고 보기도 한다. 한국 근대의 잡지들은 그 시작부터 계몽적 의도와 이념적 목적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성격을 구축해왔다.

> 근대기 잡지는 대부분 안정적인 수익구조나 이윤을 확보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판주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발행했던 것들이다. 잡지가 가지는 계몽성과 정치성은 개인이 발행하는 단행본과 비교해서 훨씬 강했다. 더구나 식민지의 억압적 검열과 발행 금지, 압수 등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발행을 지속할 때, 잡지는 대중계몽과 근대화의 전장에 나서는 지식인들의 무기와도 같았다.[50]

잡지를 발간하는 일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잡지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던 시대인지라 잡지 발간 비용은 대부분 회원들의 찬조금으로

49) 서유리,『잡지 표지로 보는 근대:시대의 얼굴』, 소명출판, 2016, 13쪽.
50) 서유리,『잡지 표지로 보는 근대:시대의 얼굴』, 소명출판, 2016, 13쪽.

www.kci.go.kr

충당되었다. 임규는 잡지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유학시절에는 대한유학생회 임원으로서 매월 1원씩을 희사하며 잡지발간에 기여했고, 귀국해서는 해학 이기와 함께 『호남학보』 발간에도 깊숙이 개입하였다. 잡지 발간은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무기와도 같은 것으로, 일반 대중을 계몽하고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는 주체적 개인을 양산하기에 좋은 도구였다. 그러기에 지식인들은 일제의 온갖 억압을 무릅쓰고 잡지를 발간하고, 잡지에 글을 발표하곤 하였다.

酌酒焚香祝歲神 술잔 올리고 향 사르며 새해 귀신을 축하하는데
今春不似去年春 금년 봄은 지난 봄과 같지 않구나
滿心一醉自由世 마음 속 꽉 찬 건 자유세상에 흠뻑 취해서
聯臂同歌平等人 팔장끼고 함께 노래하는 평등인이 되었으면
雨順風調登稻黍 비는 순하고 바람은 조화로워 곡식들이 잘 자라고
天晴海晏息兵塵 하늘은 맑고 바다는 평안하여 전쟁이 멎었으면
又將報館如椽筆 또 장차 보관이 서까래 같은 붓을 가지고
啓發文明日日新 문명을 계발하는 것이 하루하루 새로웠으면[51]

새봄을 맞아 쓴 축시이다. 기련에서 올해 봄은 지난 해 봄과는 달리 희망차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나머지 구절들에 새해 소망을 적었다. 함련에서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쏟아냈다. 인간사이의 평등은 곧 천지의 평등을 가져온다. 기상이 조화로우니 곧 태평한 세상이 된다. 이에 보관(報館)은 '보도하는 집'으로 언론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은 붓을 놀려 글을 쓰는 사람들로 곧 늘 새로운 문명을 계발하여서 나라가 점차 문명된 세계를 이루길 바랐다.

시회(詩會)가 신분적 하층계급인 중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의 한 유형이였다면, 신문잡지를 통한 시의 발표는 대중계몽과 근대적 주체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대기 미디어로서 잡지는 주체의 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잡지 편집자들은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근대적 주체 만들기를

www.kci.go.kr

51) 『북산산고』, 「춘축(春祝)」, 166쪽.

목표로 잡지를 발행했다. 상업적 목적의 잡지라 해도 잡지의 구매를 위해 적합한 독자 주체를 상상하여 소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때에 표지 이미지는 잡지의 주체 만들기 기획 속에 선택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독자 주체 만들기의 기획은 잡지가 스스로를 개성과 인격을 갖춘 주체로 기획하는 양상과 맞물려 간다는 점이다. 잡지는 자신을 주체로 만들면서 독자의 주체화를 완성해 나간다[52]고 할 수 있다.

(3) 교육 활동과 독립 의지

한국의 개화 혹은 선진화를 생각한 인사들은 한국이 반개의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개화로 나아가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가장 강조하였다. 1897년 6월 22일자 〈독립신문〉의 사설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주년 기념식을 소개하면서, 영국에는 "무식한 자가 가장 희귀한 존재"라고 주장할 정도로 교육이 영국의 부귀영화의 배경임을 강조하였다.[53] 교육에 종사하면서 외국문물의 도입과 정보에 민첩했고,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현실적이며 이해타산적이어서 유학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 결과 중인은 개화운동의 선구자나 한말의 고위직 관료로 진출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신분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54]

홍찬유의 말에 의하면, 임규는 평소 자신의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신문관, 조선광문회, 계명구락부, 조선어학 연구회 등에 참여하면서 많은 인재를 사귀었다. 한기악, 최규동, 최남선, 오세창 등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최규동은 임규보다 20년 연하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평양의 기명학교(箕明學校)・대성학교의 교사로 있으면서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에

52) 서유리(2016), 15쪽
53) 박지향(2003), 82쪽
54) 송만오, 「계보자료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중인의 사회적 지위」, 『한국학논집』44집, 2011, 202-204쪽.

www.kci.go.kr

참여했다. 1910년 한일합병 후 서울의 휘문의숙 등에서 교사로 재직했고, 1918년 중동학교(中東學校)를 설립하여 민족의식 고취와 실력양성에 힘썼다. 1947년 조선전기공업중학교를 인수했으며 그후 서울특별시교육회장, 서울대학교 이사장, 조선교육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1949년 제3대 서울대 총장에 선임되었다.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어 평양에서 살해되었다. 다음 시는 1942년 최규동의 회갑을 맞이하여 지은 시는 오언절구로 24수나 된다.

今日中東校	오늘의 중동학교는
成果豈偶然	그 성과가 어찌 우연이겠는가
滴滴注心血	방울방울 마음과 피를 흘려 넣은 것이
三十有五年	35년이나 되었다.[55]

위의 시는 최규동 회갑에 부친 시 가운데 세 번째 시이다. 중동학교를 설립하여 3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키워낸 사실을 적은 내용이다. 특별한 전고나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평이(平易)한 한자어로 서술하는 임규 시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임규는 1919년 3·1 운동에 앞서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선언서와 청원서를 일본에 전하고 돌아오다가 시모노세키에서 체포되어 일 년 동안 옥고를 치뤘다. 임규는 옥중에서 강우규 열사가 총독을 저격하고, 이후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飛彈一個一朝鮮	한 개의 폭탄은 하나의 조선으로
白首姜公報國年	허연 머리의 강공이 나라를 위한 때
暗暗携來千里外	몰래몰래 천리 밖에 가지고 와서
明明擲去萬人前	만인의 앞에서 당당하게 던졌다
殘酋魂魄生猶死	놈들은 혼비백산해 살아서도 죽은 셈이요
義士奮身碎亦全	강의사의 몸은 부숴져도 온전하다

www.kci.go.kr

55) 『북산산고』, 「壽崔白儂(奎東) 先生(附小引)」, 229쪽.

叩壁相傳消息好　　벽을 두드리고 좋은 소식 서로 전하며
鐵窓終日舞翩翩　　철창 안에서 종일토록 펄쩍펄쩍 춤을 춘다.56)

강우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경하여 1919년 9월 2일에 재등실(齋藤實) 총독이 서울역에 도착하여 마차를 타려는 순간 수류탄을 던져 살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수행원에게 중경상을 입히는데 그쳤다. 이후 숨어 다니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통쾌한 일을 했다는 것에 기뻐서 펄쩍펄쩍 춤을 추었지만, 이후 강우규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선 통곡하였다. 임규의 시를 살펴보면 왕조, 충성 등에 관한 이념은 비교적 희미해지고, 망국의 한(恨), 국가의 존망, 개인의 일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많다. 인간의 실체로서 사람들 하나하나에 더 애정을 가지고 있다.

戰雲橫四海 전쟁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는데
災厄及禽魚 재난이 짐승과 물고기까지 미친다
召募靑年急 청년들을 급하게 모집하여
徵求白屋虛 징발해가니 백성집이 텅 비었다
千勝何有得 천 번 이긴들 얻을 게 무어며
一敗更無餘 한 번 패한들 남는게 없겠나
忍與同人類 차마 모두가 한 인류인데
相殘乃晏如 서로 잔학하게 해서 어쩌려는가.57)

전쟁 구름이 온 세상에 뒤덮으면서, 그 재난은 물고기나 짐승과 같은 하찮은 것들에게까지 미친다. 청년들을 징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없애는 행위이다. 천 번을 이기고, 한 번을 패하다고 해도 전쟁이라는 것은 피아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린다. 서로 잔학하게 죽이고 죽인다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것이 전쟁의 무서움이다.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서 과감한 독립운동을 했던 임규는 늙어서도 일본의 행위에 속을 끓인다.

56) 『북산산고』, 「在獄中 聞姜烈士宇奎 狙擊朝鮮總督 齋藤實 感而賦之(己未 九月)」, 57쪽.
57) 『북산산고』, 「時事所感」, 294쪽.

www.kci.go.kr

北風吹雨雪 북풍이 진눈깨비를 불어오니
天地忽冬成 천지가 갑자기 겨울이 되었네
夜色群魔動 밤빛은 떼 지은 마귀가 움직이는 듯하고
寒聲萬騎行 찬 바람소리는 만 마리 말이 달리는 듯하네
關心惟卒歲 마음에 걸리는 건 오직 한 해를 마치는 것이니
到處幾呼庚 가는 곳마다 몇 번이나 나이를 물어보네
又是徵求急 또 젊은 군인 징발이 급하니
潛然淚自橫 가만히 눈물이 저절로 떨어진다.58)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령을 공포하였다. 이후 7월부터 군수, 토건, 탄광 노역 등으로 징용이 시작되었다. 북풍이 불고 진눈깨비가 흩날리면서 천지가 갑자기 겨울날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낮에도 그런데 밤빛은 까만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것처럼 음산하고 기괴하며, 차가운 바람소리는 수만 마리 말들이 달리는 것처럼 섬뜩하다. 전반부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은 임규 개인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징용을 하기 위해서 몇 번씩이나 나이를 물어보는 일본군 때문에, 하루, 한 해를 무사히 마치는 것만이 관심거리가 되었다. 나이가 든 것 때문에 징용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늙은이 대신에 젊은이들이 급히 징발되어 나가니 더욱 슬플 뿐이다.

3. 결론

임규는 어려서 통인으로 일하다가 갑오개혁으로 양반과 상민의 귀천이 없어지고, 일본 유학이 시작되자 사비로 일본유학을 감행한 인물이다. 유학하는 동안, 일본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유학생 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 발간에 관여하면서 최남선과 인연을 맺어 귀국하게 되었다. 최남선의 신문관을 중심으로 일본어 문법책 등을 발간하고, 「호남학보」

58) 『북산산고』, 「十一日夜 雨雪大作 冬寒猝至」, 323쪽.

www.kci.go.kr

등의 잡지발간과, 3·1 운동에 관여하여 투옥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교육활동과 독립운동에 몸을 담았다.

임규는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변화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인물이다. 신분의 한계를 체감한 임규는 스스로 일본유학을 감행했으며, 자신이 삶의 주체라는 의식을 깨닫고, 자신의 신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방안으로 시회와 매체를 활용하였다. 시를 짓는 행위도 전근대적인 시회(詩會)라는 조직과 주로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시를 지었지만 수창시나 증여시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으로는 근대적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신문, 잡지를 활용하여 시들을 발표하였다. 시회에서 쓴 시와 잡지 등에 실린 시들을 모으고, 이후 새로 추가된 시들을 모아서 『북산산고』를 완성하였다. 비록 타인의 권고에 의해서지만 생전에 스스로 문집을 완성하였다. 임규는 또한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독립운동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스스로 높였다.

임규는 『북산산고』서(序)에서 죽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싶다고 했지만, 그가 행한 것들만으로 임규의 명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북산산고』라는 시문집을 남겼고,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았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이 추서되었다. 전근대시대에 통인이나 지낼 만큼 신분이 미천했던 임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며 근대시대에는 추앙받는 인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임규, 우정, 북산, 『북산산고』, 근대성, 자아인식, 잡지, 독립운동, 교육활동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임규 저, 정후수 역, 『북산산고』, 깊은샘, 2004.

2. 논저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권두연, 「임규의 한시를 읽는 두 가지 방법」, 『열상고전연구』35집, 2016, 323-363쪽

국제어문학회 편,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발전』, 보고사, 2004.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일조각, 198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형성』, 아세아문화사, 2001.

박인화, 「구한말 도일관비유학생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석사, 1982.

박애경, 『한국 고전시가의 근대적 변전과정 연구』, 소망출판, 2008.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2003.

서유리, 『잡지 표지로 보는 근대:시대의 얼굴』, 소명출판, 2016.

서은경, 『근대 초기 잡지의 발간과 근대적 문학관의 형성』, 소명출판, 2016.

송만오, 「계보자료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중인의 사회적 지위」, 『한국학논집』 44집, 2011, 199-233쪽.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변영만 전집』상, 성균관대출판부, 2005

이경선, 『17・18세기 역관의 신분상승운동』, 동국대 석사눈문, 2011.

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와 근대 이후 이들의 진출:중재 엘리뜨의 담론과 그 귀결」, 『역사학보』 141집, 1994, 242-274쪽.

정후수, 「우정 임규 연구・서」, 『한성어문학』 11집, 1992, 51-65쪽.

_____, 「우정 임규의 근대문화사적 역할」, 『동양고전연구』1집, 1993, 3-64쪽.

_____, 「우정 임규론」, 『동악어문논집』35집, 1999, 283-309쪽.

_____, 「우정 임규의 시세계」, 『동양고전연구』18집, 2003, 141-168쪽.

조동일, 서종문, 박종성, 『국문학의 역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3,

www.kci.go.kr

〈인터넷 참고 사이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f Buksan Limkyu's modernity in modern times

Jeong, Hun

As a child, Im Kyu worked a messenger at Iksan County Office. He went on to study in Japan at his own expense as the Gabo Reform of 1894,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the nobility and the people. During his stay in Japan, he gav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to students who came to Japan to study.

When he returned to Korea, he published Japanese grammar books, published magazines such as 〈The Honamhakbo〉 and was imprisoned for engaging in March 1 movement at 1919. Later, he was involved in educational activities and korea independence movements.

Im Kyu is a person who shows the course of chang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He realized that he was the main body of life and began to study Japanese as a child. He devoted himself to education and independence movements to raise his status, attended meetings to build poetry and published poems in newspapers and magazines. He collected poems written in poetry, magazines, and other poems that were newly added and completed 〈the BuksanSango〉.

Im-kyu said he wanted to die and leave no trace, but all he did was enough to claim his reputation.

He left a collection of poems called 〈the BuksanSango〉 and was awarded

www.kci.go.kr

as a distinguished independence figure, and the Order of National Foundation was awarded in 1990. In the past, Lim Kyu, who was humble in rank, was reborn as a revered figure in modern times,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Key words】: Lim Kyu, Ujeong, Buksan, the BuksanSango, Modernity, Self-awareness, Magazine, Independence movement, Education activity

www.kci.go.kr

정훈
(전)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현) 군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군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전자우편: jhwell@daum.net

이 논문은 2018년 8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8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4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www.kci.go.kr